석사학위논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0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김 헌 욱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 현 정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ine dust Recognition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김 헌 욱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 현 정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ine dust Recognition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티에스테틱전공

김 헌 욱

김헌욱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에 스 테 틱 전 공
김 헌 욱

우리의 일상은 환경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환경문제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관심사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미세먼지는 건강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뷰티 생활과 깊숙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뷰티소비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과 그에 따른 뷰티관리행동의 차이와 요인별 차이를 분석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세먼지 위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설문지를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ver. 18.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관심영역은 대체적으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

에서,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성 영역에서는 미세먼지로 비롯되는 위험도 문항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외의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도 영역에서는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와 화장관리에서는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화장품 사용 여부'에서는 남자그룹에서 더 기초 화장품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피부 관리 부분에서는 여자그룹이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이관리에서는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식이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전문 관리 에서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 여부'에서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시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전문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관리에서도 '반팔보다 긴팔 착용 여부',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 착용 여부', '외출 후 의복을 털고 들어오는지 여부'에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의복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화장관리, 피부 관리, 식이관리, 의복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뷰티관리 중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도 '피부 관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헤어관리, 식이관리, 의복관리, 화장관리 순으로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서는 피부 관리와 헤어관리를, 여자에서는 피부 관리와 식이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리를 하

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녀 모두 자기만족과 건강을 위해서 뷰티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지출하는 평균 비용에서 남·녀 모두 5만원 미만과 5만원∽10만원 미만을 1개월에 뷰티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인식이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전문 관리, 의복관리에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20대에서 5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과 위해성 인식이 전반적인 뷰티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연구결과를 마케팅 및 제품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시켜 뷰티산업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미세먼지, 위험인식, 위해성, 뷰티관리행동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1.2 연구문제 와 가설설정 ····· 3
1.3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 4
1.3.1 미세먼지 ····· 4
1.3.2 미세먼지 위해성 ····· 5
1.3.3 뷰티관리행동 ····· 5
1.4 연구범위 및 구성 ·····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7

2.1 미세먼지와 대기환경문제 ····· 7
2.1.1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 7
2.1.2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 7
2.2 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과 인식 ····· 8
2.2.1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 8
2.2.2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 ····· 10
2.3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행동 ····· 10
2.3.1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방안 ····· 10
2.3.2 미세먼지에 대한 뷰티시장의 대응 방안 ····· 11
2.4 뷰티관리행동 ····· 12

III. 연구방법 ····· 14

3.1 연구모형 ····· 14
3.2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15
3.3 연구 대상자 ····· 16
3.4 연구 설문구성 및 연구방법 ····· 17
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9

IV. 연구결과 ····· 20

4.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 20
4.2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 22

V. 결 론 및 제언 ····· 65

5.1 결론 ····· 65
5.2 제언 ····· 72

참 고 문 헌 ····· 73

부 록 ····· 76

ABSTRACT ····· 83

표 목 차

[표 3-1] 조사 표본 ····· 19
[표 3-2] 연구 대상자 ····· 21
[표 3-3] 설문지 구성 ····· 29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1
[표 4-2]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 25
[표 4-3]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 ····· 30
[표 4-4] 성별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 39
[표 4-5]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 44
[표 4-6]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 ····· 48
[표 4-7]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 55
[표 4-8]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특성 ····· 60
[표 4-9]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 ····· 61
[표 4-10]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 ····· 62
[표 4-11]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간 따른 회귀분석 결과 ·· 63
[표 4-12]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간 따른 회귀분석 결과 ····· 64

그 림 목 차

[그림 1-1] 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 4
[그림 3-1] 연구모형 ····· 14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의 일상은 환경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환경문제 가운데 최근의 주목받는 관심사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됨으로써, 가정은 물론 직장, 학교, 버스나 지하철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과 지역 그리고 시간과 무관하게 미세먼지는 생활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나 육상, 농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USEPA)에 의하면 높은 미세먼지 농도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 에서도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정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미세먼지를 9개의 국가 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1]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법)이 시행하였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일상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미용 손상도 일으키는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 아황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이 두피모발에 화학적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기 중 먼지, 티끌 등이 모표피에 물리적 손상을 일으켜 두피모발 손상을 주며[2] 모공 사이사이에 침착되어 각질, 피지와 뒤엉켜 모공을 막고 동시에 세균을 번식시켜 트러블과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정상적인 피부 세포 성장까지 방해한다.

---

1) 현상민, 강정원. (2017). 『미세먼지 과학』. 서울: 씨아이알. p.ix.

2) 김춘일. (2001). 『permanent wave design』. 서울: 고문사. p.162.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화장품들이 생겨나고 미세먼지가 모공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예방하고 막아주는 화장품과 세정력을 높여주는 화장품들이 출시되면서 더 이상 뷰티시장도 미세먼지문제를 간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 뷰티 생활과 깊숙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미세먼지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고, 모발, 두피손상 인식에 미치는 연구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연구들만 이루어졌었다.

본 논문에서는 20대에서 5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과 위해성 인식이 전반적인 뷰티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마케팅 및 제품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시켜 뷰티산업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와 가설설정

본 연구는 뷰티소비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과 그에 따른 뷰티관리행동의 차이와 요인별 차이를 분석 검증한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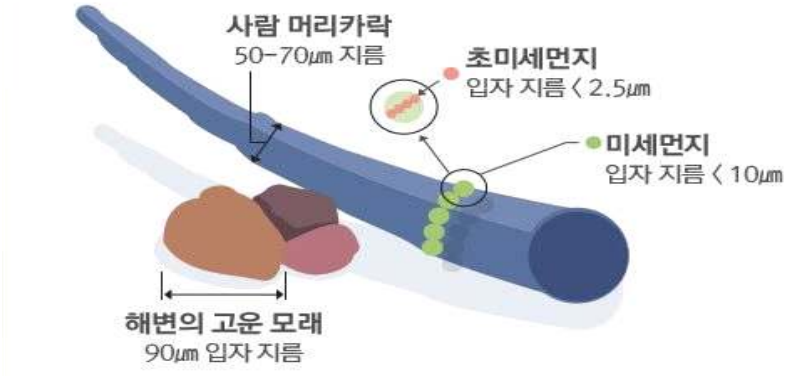
〈연구문제2〉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

1.3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1.3.1 미세먼지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란 10㎛이하의 크기를 지닌 모든 물질들을 일컬어 미세먼지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런 개념은 1993년 미국 환경 보호청(USEPA)에서 정의하였다. 당시에 미세먼지는 10㎛이하의 크기를 지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물질로 정의되었는데, 이 개념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그 크기가 10㎛이하 이면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기체, 고체, 액체 상태의 물질을 총칭[3]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세먼지와 사람의 머리카락을 비교한 상대적 크기 비교는 [그림 1-1]과 같다.[4]



[그림 1-1] 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3) 현상민, 강정원, 전게서, pp.10-11.

4) 미국환경보호청. (2019). http://www.epa.gov. 2019. 11. 10. 검색.

1.3.2 미세먼지 위해성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위해성이란 몸속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가면서 면역세포가 이를 제거하기위해 작용하고, 이 때 염증반응이 나타나는데 특히, 폐, 뇌, 기도 등 각 기관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며,[5]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공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3 뷰티관리행동

본 연구에서 뷰티관리행동이란 어떤 동작이나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의 '행동'과 뷰티를 합성하여 뷰티관리행동을 정의하고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관리하는 수단으로[6]의 헤어, 화장, 피부, 식이, 메디컬, 의복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행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건강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불청객, 미세먼지』.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 김인옥. (2019).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뷰티관심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1.4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4가지 핵심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고, 이를 참고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증자료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문제, 배경, 목적,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범위 및 방법을 서술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 논문 분석을 서술하였다.

셋째, 연구조사를 위해서 연구모형, 연구 설계, 분석,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 및 연구방법, 연구 조사 결과의 분석과 기술로 연구를 설계 하였다.

넷째, 실증조사 분석에 따른 결과를 기술하였다.

다섯째, 4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결론 한계점, 연구 기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미세먼지와 대기환경문제

2.1.1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복합적이며, 대부분 자연적 원인보다 연료 연소에 의한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다. 국내 배출과 국외의 영향으로 구분되며, 계절별(월별) 바람, 강수 등(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다. 국내는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출구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 2차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의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으로는 자동차, 냉난방, 사업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33만 6천 톤이며, 이 중에서 수도권 배출량은 5만 8천 톤 이다.[8]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되며 나머지 30~50% 는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9]

2.1.2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2016)[10]에서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씻어 내리는 기상학적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겨울과 봄에는 강수가 극히 적어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생기는 대륙성 고기압으

7) 환경부. (2019).『미세먼지 팩트 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실.

8) 환경부. (2019).『미세먼지 주요 배출원과 배출량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실.

9) 홍하나. (2016). “미세먼지에 의한 모발 및 두피 손상인식과 관리 태도에 관한 만족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0) 환경부(2016).『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서울: 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실.

로 인해 대기정체가 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발생 시킨다고 밝혔다.

윤서성, 추장민[11]과 황승식, 권호장, 조수헌[12]은 입자상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의 악영향으로는 구름 형성 복사 강제력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가시손상 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들 수가 있고 빛 굴절을 방해하여 시정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구름이 만들어 지는 부분의 핵이 되고 복사 강제력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간접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이처럼 대기입자상 오염물질이 대기질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대기질의 영향을 통해 항공기 결항, 반도체산업의 영향, 불쾌감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야기 시킨다.

2.2 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과 인식

2.2.1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눈으로 확인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매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평균 오염수준 및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13] 2019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미세먼지(PM 10) 44㎍/㎥, 초미세먼지(PM 2.5) 25㎍/㎥으로 미국(미세먼지(PM 10): 33㎍/㎥,초미세먼지(PM 2.5): 14.8㎍/㎥)과 일본(미세먼지(PM 10): 17㎍/㎥, 초미세먼지(PM 2.5): 12.8㎍/㎥)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14]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윤서성, 추장민. (2004). 동북아지여의 황사피해분석 및 피해 저감을 위한지역 협력 방안 ii. 서울: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12) 황승식, 권호장, 조수헌. (2005).2002년 봄 서울 지역에 발생한 심한 황사가 일병사망에 미치는 영향.『대한예방의학회』, 38호, 197-202.

13) 김운수. (2014).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1-19.

14) 미국환경보호청. (2019). http://www.epa.gov. 2019. 11. 10. 검색.

KTB투자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5년 80만대에서 4년 만에 200만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물도 정수기로 정화하여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15] 먼지 대부분 기관지점막이나 코털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PM10)은 입자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구강, 기관지,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속까지 침투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황승식[17]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기오염 현상으로 지난 1952년 12월에 발생한 영국의 스모그 현상에 주목하였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런던 스모그가 발생한 첫2주 동안 4,000여 명이 사망했고, 그 후에 만성 폐질환으로 8,000명이 숨졌다. 정연정[18]은 이 사건은 주로 아황산가스와 떠다니는 먼지가 안개와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구상미, 김현지[19]는 PM2.5가 폐암 발생률 뿐 아니라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병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예상수명 또한 단축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미세먼지는 코 점막이나 목구멍을 통과한 후 뇌까지 도달이 가능하며, 노년층의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임신 중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자폐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률 또한 증가할 수 있다.

---

15) 현상민. (2018). 『미세먼지 X파일 : 미세먼지 인벤토리』. 서울: 씨아이알, p.3.

16)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Fine dust, what the hell?". Ministry of Environment. pp.6-22.

17) 현상민, 상게서. pp.5-6.

18) 정연정. (2017). "부모와 보육교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안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9) 구상미, 김현지. (2019). 간호대학생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인식, 지식, 위험태도, 건강관리행위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78-84.

2.2.2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김운수[20]의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58.2%가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기오염을 꼽았고, 서울 대기오염에 대해 서울시민의 75.8%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1]의 '사회통합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위험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3.6점 만점의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 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2.3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행동

2.3.1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방안

최근 들어 공기 중 유해 물질에 의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대기 유해물질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향해 나가고 있다.[22] 따라서 생활환경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오염원들의 특성에 맞게 대기환경 정책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법 을 시행하고, 차량운행을 배출가스 5등급 이하로 제한하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국가와의 협력증진 방안과 범국가적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였다.

2.3.2 미세먼지에 대한 뷰티시장의 대응 방안

20) 김운수, 전게서, pp.1-19.

21)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2(4), 149-150.

22) 박승호. (2014). "미세 먼지에 관련한 인식평가와 교과 분석을 통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학생 대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화장품 시장에서는 안티폴루션 이라는 미세먼지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대략 2011년부터 형성되었으며 김선영[23]에 따르면 화장품 쇼핑몰에서는 안티폴루션 관리프로그램 제품이 이미 3~4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과 로드숍도 2014년 봄이 오기 전인 2~3월에 안티폴루션 제품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에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화장품 라인을 선보였다. 최근 미세먼지·자외선 등 복학접인 환경이 피부 노화를 빠르게 앞당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뷰티시장은 도시형 노화에 주목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개선 할 수 있는 신 개념 안티폴루션(Anti-pollution)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엔 기초단계나 메이크업 단계에서 안티폴루션 기능이 적용된 화장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외부 공기와 피부의 경계를 만들어 밀폐효과가 뛰어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24]

미세먼지가 탈모의 하나의 원인으로도 지목됨에 따라 헤어 케어 제품의 트렌드 도 미세먼지 차단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성분을 넣어 헤어를 코팅해 미세먼지를 최대한 막고 쉽게 헹구어 낼 수 있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각종 질환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를 제거 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피부와 헤어뿐만 아니라 의복의 관리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25]에 따르면 미세먼지 방지와 관련된 제품들의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3대 가전으로 인기 있는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의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젠 필수가 된 공기청정기의 디자인 출원은 5년간 (2013~2017년) 총 546건이 출원되었다. 2008~2012년의 4년 동안 322건 대비 70%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피부과 에서도 미세먼지와 트러블 해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마케팅으로 내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약국, 마스크·인후스프레이·안약의 매출도 20~30%

23) 김선영. (2019). 미세먼지 차단 안티폴루션 화장품에 대한 시장분석 및 브랜딩 전략.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p.9.

24) CMN. (2019). https://www.cmn.co.kr. 2019. 12.01. 검색.

25) 특허청. (2019). https://www.kipo.go.kr. 2019. 12.01. 검색.

오른다고 하였다.[26]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환경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뷰티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4 뷰티관리행동

현대에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첫인상의 호감과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형을 만들어 이러한 기준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이상적 자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뷰티관리행동을 활용하고 있다.[27]

Kaiser[28]는 뷰티행동을 서로 상호관계를 통해 자기표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모습과 이상적인 신체모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형수술, 체중관리, 피부관리와 같은 뷰티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 만족도를 높이며 신체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뷰티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홍성임[29]은 이러한 뷰티행동은 미용산업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사회적 유행의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모 향상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

26) 데일리팜. (2019). http://www.dailypharm.com. 2019.12.01. 검색.

27) 조미진, 김성남. (2019). 생활체육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뷰티관리행동. 『한국디자인문화학회』.25(3). 427-444

28) S. B. Kaiser.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pp.157-424.

29) 홍성임. (2007). 소득에 따른 중년층의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김현[30]은 미용에 관련된 실제 행위는 얼굴, 모발, 피부, 발과 손 등의 상태를 개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기술인 동시에 예술의 한 분야로 향수와 화장품, 각종 손, 기기 등을 사용하여 외모를 가꾸는 하나의 응용과학이라고 하였다.

김인옥[31]은 움직여 동작을 한다는 '행동'을 뷰티와 합성하여 뷰티관리행동을 정의하면서 외적인 이미지 관리수단으로 헤어관리, 피부관리, 두피관리, 체형관리, 미용성형관리 및 메이크업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개선시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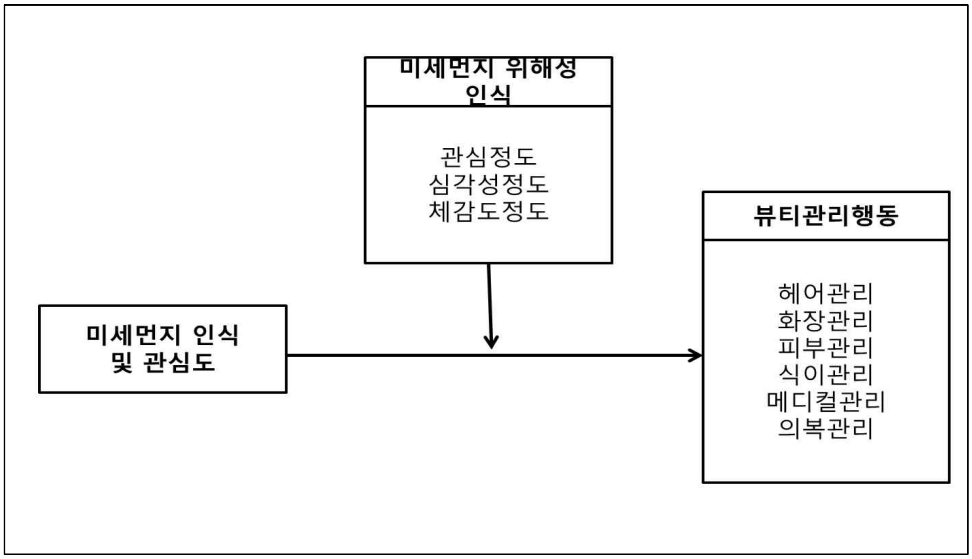
30) 김현. (2003). 남녀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6-69.

31) 김인옥. (2019).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뷰티관심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뷰티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14.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미세먼지 인식이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과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대부터 50대 이상의 남녀 521명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법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모형은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를 독립변인으로 미세먼지 위해성 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뷰티관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표본은 인구통계학적 연구결과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하였고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본 조사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까지 구글 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모바일을 통해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접배포 한 100부중 100부를 회수하여, 총 521부를 수거하였다. 이 중 응답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하고 510부를 최종 분석하여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된 표본을 정리하면 [표3-1]과 같다.

[표 3-1] 조사 표본

조사 대상	20-50대이상 남녀
모집단	수도권 거주자
자료수집	자기기입법
조사 기간	2019년 11월 17일-12월10일
배포 설문지 회수설문지	배포한 총 설문지 : 521부
	회수된 설문지 : 521부
	제외된 설문지 : 11부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 510부

3.3 연구 대상자

[표 3-2] 연구 대상자

N=510

			퍼센트
	남자	234	45.9
	여자	276	54.1
연령	20대	121	23.7
	30대	147	28.8
	40대	125	24.5
	50대 이상	117	23.0
직업	학생	36	7.4
	전문직	104	20.3
	회사원	163	31.9
	서비스직	67	13.1
	자영업/프리랜서	55	10.7
	주부	74	14.5
	기타	11	2.1
결혼 유무	미혼	199	39.1
	기혼	311	60.9
자녀 유무		229	44.9
	없다	281	55.1
합계		510	100.0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45.9% 이며 여자는 54.1% 이고, 30대가 28.8%, 40대가 24.5%, 20대가 23.7%, 50대 이상이 23% 이었다. 회사원이 31.9%, 전문직 20.3%, 주부 14.7%, 서비스직 13.1%, 자영업/프리랜서가 10.7%, 학생7.4%, 기타 2.1% 이었다. 또한 기혼이 60.9%, 그리고 미혼은 39.1%이었고, 자녀 유무는 없다 55.1%, 있다 44.9% 이었다.

3.4 연구 설문구성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항목을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조사도구 및 설문지 구성은 [표3-3]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승호[32]와 홍하나[33]의 연구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을 재구성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다. 총 8문항이며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미세먼지 위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욱[34]과 박은선[35]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박민경[36]의 연구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수정, 보완 하였다.

셋째, 뷰티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별[37],홍하나[38]의 연구를 재구성 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총 5문항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

32) 박승호, 전게논문, p.23

33) 홍하나, 전게논문, pp.67-69.

34) 김영욱, 이현승, 이혜진, 장유진. (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2, 52-91.

35) 박은선, 오현정, 김수현, 민아리. (2018). 대학생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관리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와 건강 관리행위의 관계.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0(1), 20-29.

36) 박민경. (2018). “노인의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와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p.20

37) 오 별, 전게논문, pp.74-77.

38) 홍하나, 전게논문, pp.67-69.

다섯째, 뷰티관리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오별[39], 홍하나[40], 김인옥[41]의 연구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다.

[표 3-3]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척도	문항 수	출처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리커트(Likert) 5점 척도	8	박승호(2014). 홍하나(2016).
미세먼지 위험인식	관심영역	리커트(Likert) 5점 척도	3	김영욱(2015). 박은선(2018). 박민경(2018).
	심각성 영역		4	
	체감도 영역		4	
뷰티관리행동	헤어관리	리커트(Likert) 5점 척도	3	오별(2012). 홍하나(2016). 연구자.
	화장관리		4	
	피부관리		3	
	식이관리		3	
	전문관리		3	
	의복관리		3	
일반적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명목척도	5	연구자.
	뷰티관리행동 특성	명목척도	5	김인옥(2019). 연구자.

39) 오 별, 전게논문, pp.74-77.

40) 홍하나, 전게논문, pp.67-69.

41) 김인옥, 전게논문, p.90.

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WIN(ver. 18.0)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과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뷰티관리행동 특성에서 뷰티관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뷰티관리 실시 시기, 이유, 횟수, 1개월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과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위험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과 χ^2검정과 평균 점수는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4.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위험 인식 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모든 변인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서 '남자' 234명(44.3%), '여자, 276명(52.3%) 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30대' 147명(28.8%), '40대' 125명(24.5%), '20대' 121명(23.7%), '50대 이상' 117명(22.9%)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직업에서 전체적으로 '회사원' 165명(32.4%), '전문직' 104명(20.4%), '주부' 72명(14.5%), '서비스직' 67명(13.1%), '자영업/프리랜서' 55명(10.8%), '학생' 36명(7.1%), '기타' 11명(4.4%)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결혼 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혼' 311명(61%), '미혼 199명(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자녀 유무에서 전체적으로 '없다' 281명(55.1%), '있다' 229명(4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연령대, 직업,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의 문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변수		(n=234)	여자 (n=276)	전체 (n=510)
연령	20대	78(33.3)	43(15.6)	121(23.7)
	30대	76(32.5)	71(25.7)	147(28.8)
	40대	58(24.8)	67(24.3)	125(24.5)
	50대 이상	22(9.4)	95(34.4)	117(22.9)
직업	학생	24(10.3)	12(4.3)	36(7.1)
	전문직	41(17.5)	63(22.8)	104(20.4)
	회사원	103(44.0)	62(22.5)	165(32.4)
	서비스직	27(11.5)	40(14.5)	67(13.1)
	자영업/프리랜서	34(14.5)	21(7.6)	55(10.8)
	주부	2(0.9)	72(26.1)	74(14.5)
	기타	5(2.2)	6(2.2)	11(4.4)
결혼 여부	미혼	112(47.9)	87(31.5)	199(39.0)
	기혼	122(52.1)	189(68.5)	311(61.0)
자녀 유무	있다	122(52.1)	107(38.8)	229(44.9)
	없다	112(47.9)	169(61.20)	281(55.1)

4.2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본 논문은 연구문제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영역의 큰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를 가설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응답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4.2.1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를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281명(55.1%), '그렇다' 155명(30.5%), '보통이다' 60명(11.8%), '그렇지 않다' 8명(1.6%),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2%) 이었다.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4.39±0.85점, '여자' 4.34±0.8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204명(40.1%), '매우 그렇다' 167명(32.9%), '보통이다' 106명(20.8%), '그렇지 않다' 28명(5.5%), '전혀 그렇지 않다' 4명(0.8%)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96±0.88점, '여자' 4.01±0.9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89명(37.1%)으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145명(28.5%), '매우 그렇다' 135명

(26.5%), ‘그렇지 않다’ 36명(7.1%),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0%),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75±0.96점, ‘여자’ 3.86±0.9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87명(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48명(29.0%), ‘매우 그렇다’ 100명(19.6%), ‘그렇지 않다’ 56명(11.0%),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3.7%) 순으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56±1.08점, ‘여자’ 3.44±1.02점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85명(36.3%)으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 135명(26.5%), ‘보통이다’ 113명(22.2%), ‘그렇지 않다’ 58명(11.4%),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3.7%) 순으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71±1.15점, ‘여자’ 3.70±1.04점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 여 모두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게 된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92명(37.6%)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189명(37.1%), ‘보통이다’ 83명(16.3%), ‘그렇지 않다’ 36명(7.1%), ‘전혀 그렇지 않다’ 1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94±1.03점, ‘여자’ 4.07±0.9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였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51명(29.6%)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140명(27.5%), ‘보통이다’ 122명(23.9%), ‘그렇지 않다’ 51명(10.0%), ‘전

혀 그렇지 않다’ 46명(9.0%),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48±1.26점, ‘여자’ 3.64±1.22점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각종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도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203명(39.8%)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134명(26.3%), ‘보통이다’ 134명(26.3%), ‘그렇지 않다’ 37명(7.3%),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4%) 순이었다.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76±0.97점, ‘여자’ 3.91±0.84점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에서 전체적인 문항의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남자’ 3.82±0.74점, ‘여자’ 3.87±0.70점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약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n(%)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x^2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136(58.1)	145(52.5)	281(55.1)	2.147
	그렇다	64(27.4)	91(33.1)	155(30.5)	
	보통이다	27(11.5)	33(12.0)	60(11.8)	
	그렇지 않다	4(1.7)	4(1.5)	8(1.6)	
	전혀 그렇지 않다	3(1.3)	3(1.1)	6(1.2)	
	평균점수 t-value	4.39±0.85	4.34±0.82	4.37±0.83	.656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65(27.8)	103(37.3)	167(32.9)	16.825***
	그렇다	111(47.4)	93(33.8)	204(40.1)	
	보통이다	45(19.2)	61(22.2)	106(20.8)	
	그렇지 않다	9(3.8)	19(6.9)	28(5.5)	
	전혀 그렇지 않다	4(1.7)	0(0.0)	4(0.8)	
	평균 점수 t-value	3.96±0.88	4.01±0.96	3.99±0.91	-.707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58(24.8)	77(27.9)	135(26.5)	3.231
	그렇다	85(36.3)	104(37.8)	189(37.1)	
	보통이다	70(29.9)	75(27.3)	145(28.5)	
	그렇지 않다	17(7.3)	19(6.9)	36(7.1)	
	전혀 그렇지 않다	4(1.7)	1(0.4)	5(1.0)	
	평균 점수 t-value	3.75±0.96	3.86±0.91	3.81±0.94	-1.275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54(23.1)	46(16.7)	100(19.6)	5.735
	그렇다	68(29.1)	80(29.0)	148(29.0)	
	보통이다	79(33.8)	108(39.3)	187(36.7)	
	그렇지 않다	22(9.4)	34(12.4)	56(11.0)	
	전혀 그렇지 않다	11(4.7)	8(2.9)	19(3.7)	
	평균 점수 t-value	3.56±1.08	3.44±1.02	3.50±1.04	1.318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69(29.5)	66(23.9)	135(26.5)	8.836
	그렇다	79(33.8)	106(38.4)	185(36.3)	
	보통이다	43(18.4)	70(25.4)	113(22.2)	
	그렇지 않다	34(14.5)	24(8.7)	58(11.4)	
	전혀 그렇지 않다	9(3.8)	10(3.6)	19(3.7)	
	평균 점수 t-value	3.71±1.15	3.70±1.04	3.70±1.09	.023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게 된다	매우 그렇다	81(34.6)	108(39.1)	189(37.1)	2.989
	그렇다	90(38.5)	102(37.0)	192(37.6)	
	보통이다	37(15.8)	46(16.7)	83(16.3)	
	그렇지 않다	20(8.5)	16(5.8)	36(7.1)	
	전혀 그렇지 않다	6(2.6)	4(2.0)	10(2.0)	
	평균 점수 t-value	3.94±1.03	4.07±0.95	4.01±0.99	-1.413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	60(25.6)	80(29.0)	140(27.5)	3.220
	그렇다	64(27.4)	87(31.5)	151(29.6)	
	보통이다	62(26.5)	60(21.7)	122(23.9)	
	그렇지 않다	24(10.3)	27(9.8)	51(10.0)	
	전혀 그렇지 않다	24(10.3)	22(8.0)	46(9.0)	
	평균 점수 t-value	3.48±1.26	3.64±1.22	3.56±1.24	-1.444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60(25.6)	74(26.8)	134(26.3)	8.814
	그렇다	86(36.8)	117(42.4)	203(39.8)	
	보통이다	62(26.5)	72(26.1)	134(26.3)	
	그렇지 않다	24(10.3)	13(4.7)	37(7.3)	
	전혀 그렇지 않다	2(0.9)	0(0.0)	2(0.4)	
	평균 점수 t-value	3.76±0.97	3.91±0.84	3.84±0.91	-1.889
	전체 평균 t-value	3.82±0.74	3.87±0.70	3.85±0.72	-.833

*p<.05, **p<.01, ***p<.001, x^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2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

1) 관심영역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를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8명(3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7명(24.9%), '그렇다' 119명(23.3%), '매우 그렇다' 73명(14.3%), '전혀 그렇지 않다' 33명(6.5%)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06±1.20점, '여자' 3.21±1.0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이를 무시하는 편이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85명(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5명(24.5%), '보통이다' 115명(22.5%), '그렇다' 66명(12.9%), '매우 그렇다' 19명(3.7%)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18±1.18점, '여자' 2.28±1.1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95명(3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15명(22.5%), ‘그렇다’ 97명(19.0%), ‘전혀 그렇지 않다’ 76명(14.9%), ‘매우 그렇다’ 27명(5.3%)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78±1.03점, ‘여자’ 2.76±1.1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 여 모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심각성 영역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87명(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179명(35.1%), ‘보통이다’ 99명(19.4%), ‘그렇지 않다’ 38명(7.5%), ‘전혀 그렇지 않다’ 7명(1.4%)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92±1.00점, ‘여자’ 4.01±0.9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89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9명(25.3%), ‘전혀 그렇지 않다’ 102명(20.0%), ‘그렇다’ 68명(13.3%), ‘매우 그렇다’ 22명(4.3%) 순으로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p<.05$),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62±1.05점, ‘여자’ 2.52±1.1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68명(3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55명(30.4%),‘매우 그렇다’ 123명(24.1%), ‘그렇지 않다’ 53명(10.4%),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2.2%)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53±1.02점, '여자' 3.73±1.0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291명(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41명(27.6%), '보통이다' 65명(12.7%), '그렇지 않다' 9명(1.8%), '전혀 그렇지 않다' 4명(0.8%)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4.26±0.89점, '여자' 4.49±0.7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체감도 영역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52명(2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139명(27.3%), '보통이다' 111명(21.8%), '그렇지 않다' 75명(14.7%), '전혀 그렇지 않다' 33명(6.5%)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43±1.29점, '여자' 3.68±1.1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94명(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134명(26.3%), '보통이다' 105명(20.6%), '그렇지 않다' 54명(10.6%),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4.5%)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52±1.11점, '여자' 3.87±1.0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

이 악화 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32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30명(25.5%), '매우 그렇다' 106명(26.3%), '그렇지 않다' 83명(16.3%),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11.6%)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12±1.29점, '여자' 3.41±1.2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60명(3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132명(25.9%), '매우 그렇다' 122명(23.9%), '그렇지 않다' 65명(12.7%), '전혀 그렇지 않다' 31명(6.1%)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34±1.15점, '여자' 3.72±1.1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메세먼지 위험 인식에서 전체적으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남자' 3.25±0.62점, '여자' 3.42±0.5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

n(%)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χ^2
관심 영역	관련한 정보	매우 그렇다	38(16.2)	35(12.7)	73(14.3)	
		그렇다	45(19.2)	74(26.8)	119(23.3)	
		보통이다	63(26.9)	95(34.4)	158(31.0)	11.897*
		그렇지 않다	70(29.9)	57(20.7)	127(24.9)	
		전혀 그렇지 않다	18(7.7)	15(5.4)	33(6.5)	
		평균점수 t-value	3.06±1.20	3.21±1.07	3.14±1.13	-1.409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무시 여부	매우 그렇다	10(4.3)	9(3.3)	19(3.7)	
		그렇다	26(11.1)	40(14.5)	66(12.9)	
		보통이다	51(21.8)	64(23.2)	115(22.5)	2.151
		그렇지 않다	57(24.4)	68(24.6)	125(24.5)	
		전혀 그렇지 않다	90(38.5)	95(34.4)	185(36.3)	
		평균점수 t-value	2.18±1.18	2.28±1.17	2.23±1.17	-.874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	매우 그렇다	9(3.8)	18(6.5)	27(5.3)	
		그렇다	46(19.7)	51(18.5)	97(19.0)	
		보통이다	96(41.0)	99(35.9)	195(38.2)	3.231
		그렇지 않다	51(21.8)	64(23.2)	115(22.5)	
		전혀 그렇지 않다	32(13.7)	44(15.9)	76(14.9)	
		평균점수 t-value	2.78±1.03	2.76±1.12	2.77±1.08	.182
심각성 영역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도	매우 그렇다	80(34.2)	99(35.9)	179(35.1)	
		그렇다	81(34.6)	106(38.4)	187(36.7)	
		보통이다	50(21.4)	49(17.8)	99(19.4)	2.173
		그렇지 않다	20(8.5)	18(6.5)	38(7.5)	
		전혀 그렇지 않다	3(1.3)	4(1.4)	7(1.4)	
		평균점수 t-value	3.92±1.00	4.01±0.96	3.97±0.98	-1.012
	미세먼지 발생 위험 통제여부	매우 그렇다	10(4.3)	12(4.3)	22(4.3)	
		그렇다	28(12.0)	40(14.5)	68(13.3)	
		보통이다	104(44.4)	85(30.8)	189(37.1)	11.190*
		그렇지 않다	48(20.5)	81(29.3)	129(25.3)	
		전혀 그렇지 않다	44(18.8)	58(21.0)	102(20.0)	
		평균점수 t-value	2.62±1.05	2.52±1.10	2.57±1.08	1.100
	미세먼지로 비롯되는 위험도	매우 그렇다	51(21.8)	72(26.1)	123(24.1)	
		그렇다	59(25.2)	96(34.8)	155(30.4)	
		보통이다	94(40.2)	74(26.8)	168(32.9)	11.984*
		그렇지 않다	24(10.3)	29(10.5)	53(10.4)	
		전혀 그렇지 않다	6(2.6)	5(1.8)	11(2.2)	
		평균점수 t-value	3.53±1.02	3.73±1.02	3.64±1.02	-2.136#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 세대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118(50.4)	173(62.7)	291(57.1)	
		그렇다	73(31.2)	68(24.6)	141(27.6)	
		보통이다	32(13.7)	33(12.0)	65(12.7)	16.239**
		그렇지 않다	9(3.8)	0(0.0)	9(1.8)	
		전혀 그렇지 않다	2(0.9)	2(0.7)	4(0.8)	
		평균점수 t-value	4.26±0.89	4.49±0.76	4.38±0.83	-3.005##

[표 4-3 계속] n(%)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χ^2
체감도 영역	호흡곤란 여부	매우 그렇다	64(27.4)	75(27.2)	139(27.3)	
		그렇다	54(23.1)	98(35.5)	152(29.8)	
		보통이다	56(23.9)	55(19.9)	111(21.8)	12.819*
		그렇지 않다	39(16.7)	36(13.0)	75(14.7)	
		전혀 그렇지 않다	21(9.0)	12(4.3)	33(6.5)	
		평균점수 t-value	3.43±1.29	3.68±1.13	3.57±1.21	-2.321#
	두통이나, 눈, 목 등의 따가움 여부	매우 그렇다	44(18.8)	90(32.6)	134(26.3)	
		그렇다	90(38.5)	104(37.7)	194(38.0)	
		보통이다	57(24.4)	48(17.4)	105(20.6)	15.603**
		그렇지 않다	29(12.4)	25(9.1)	54(10.6)	
		전혀 그렇지 않다	14(6.0)	9(3.3)	23(4.5)	
		평균점수 t-value	3.52±1.11	3.87±1.07	3.71±1.10	-3.678###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보유 질병 악화 여부	매우 그렇다	41(17.5)	65(23.6)	106(20.8)	
		그렇다	52(22.2)	78(28.3)	130(25.5)	
		보통이다	68(29.1)	64(23.2)	132(25.9)	9.032
		그렇지 않다	39(16.7)	44(15.9)	83(16.3)	
		전혀 그렇지 않다	34(14.5)	25(9.1)	59(11.6)	
		평균점수 t-value	3.12±1.29	3.41±1.25	3.28±1.28	-2.632##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매우 그렇다	43(18.4)	79(28.6)	122(23.9)	
		그렇다	62(26.5)	98(35.5)	160(31.4)	
		보통이다	78(33.3)	54(19.6)	132(25.9)	20.589***
		그렇지 않다	33(14.1)	32(11.6)	65(12.7)	
		전혀 그렇지 않다	18(7.7)	13(4.7)	31(6.1)	
		평균점수 t-value	3.34±1.15	3.72±1.13	3.54±1.16	-3.726###
	전체평균	t-value	3.25±0.62	3.42±0.56	3.34±0.59	-3.290##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3 성별에 따른 뷰티 관리 행동

1) 헤어관리

성별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73명(3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40명(27.5%), '보통이다' 127명(24.9%), '그렇다' 48명(9.4%), '매우 그렇다' 22명(4.3%) 순으로 나타났고($p<.05$),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08±1.11점, '여자' 2.35±1.1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취침 전 머리를 감는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47명(2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128명(25.1%), '그렇다' 119명(23.3%), '그렇지 않다' 62명(12.2%), '전혀 그렇지 않다' 54명(10.6%) 순으로 나타났고($p<.0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39±1.16점, '여자' 3.41±1.3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취침 전 머리를 감다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헤어 스타일링제를 바르지 않는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34명(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20명(23.5%), '그렇지 않다' 105명(20.6%), '그렇다' 76명(14.9%), '매우그렇다' 75명(14.7%)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93±1.31점, '여자' 2.63±1.7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헤어 스타일링제를 바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에서 문항에서는 집단 간에 평균점수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균점수에서는 같은 점수를 나타내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2) 화장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메이크업 제품구입에 더 신경 쓴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9명(3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30명(25.5%), '그렇지 않다' 121명(23.8%), '그렇다' 67명(13.2%), '매우 그렇다' 32명(6.3%) 순으로 나타났고($p<.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36±1.08점, '여자' 2.62±1.2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메이크업 제품구입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안티폴루션 제품, 썬크림 등)'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38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23명(24.2%), '그렇지 않다' 115명(22.6%), '그렇다' 88명(17.3%), '매우 그렇다' 45명(8.8%) 순으로 나타났고($p<.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50±1.19점, '여자' 2.76±1.30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초 화장품만 사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0명(2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49명(29.3%), '그렇지 않다' 128명(25.1%), '그렇다' 59명(11.6%), '매우 그렇다' 23명(4.5%)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47±1.09점, '여자' 2.29±1.19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초 화장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화장품을 선호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3명(3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2명(24.0%), '전혀 그렇지 않다' 118명(23.2%), '그렇다' 75명(14.7%), '매우 그렇다' 41명(8.1%) 순으로 나타났고($p<.0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47±1.10점, '여자' 2.72±1.2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뷰티관리 행동 중 화장관리 전체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45±0.95점, '여자' 2.59±1.0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화장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했다.

3) 피부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166명(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58명(31.0%), '보통이다' 107명(21.0%), '그렇지 않다' 41명(8.0%),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7.5%) 순으로 나타났고(p<.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53±1.26점, '여자' 3.91±1.1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07명(2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12명(22.0%), '그렇다' 97명(19.0%), '매우 그렇다' 75명(14.7%), '그렇지 않다' 74명(14.5%) 순으로 나타났고(p<.0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67±1.42점, '여자' 3.09±1.2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콧속 청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151명(2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141명(27.6%), '보통이다' 122명(23.9%), '그렇지 않다' 52명(10.2%),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8.6%)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52±1.26점, '여자' 3.62±1.19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콧속 청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관리 전체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23±1.13점, '여자' 3.53±1.0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피부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식이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43명(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29명(25.3%), '전혀 그렇지 않다' 113명(22.2%), '그렇다' 77명(15.1%), '매우 그렇다' 48명(9.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p<.05),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57±1.25점, '여자' 2.70±1.2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7명(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 132명(25.9%), '매우 그렇다' 108명(21.2%), '그렇지 않다' 70명(13.7%),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8.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3.28±1.19점, '여자' 3.46±1.2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정음식을 챙겨 먹는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57명(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16명(22.7%), '전혀 그렇지 않다' 98명(19.2%), '그렇다' 84명(16.5%), '매우 그렇다' 55명(10.8%)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72±1.23점, '여자' 2.81±1.2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정음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뷰티관리 행동 중 식이관리 전체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85±1.07점, '여자' 2.99±1.0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미한 차이는 없었고,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식이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전문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을 받는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266명(5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15명(22.5%), '보통이다' 71명(13.9%), '그렇다' 39명(7.6%), '매우 그렇다' 19명(3.7%)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남자' 1.99±1.19점, '여자' 1.79±1.0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74.7%에서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과나 전문병원을 이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98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07명(21.0%), '보통이다' 91명(17.8%), '그렇다' 89명(17.5%), '매우 그렇다' 25명(4.9%)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남자' 2.38±1.29점, '여자' 2.21±1.2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59.8%에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과나 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 세정제를 사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79명(3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118명(23.1%), '보통이다' 113명(22.2%), '그렇다' 63명(12.4%), '매우 그렇다' 37명(7.3%)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23±1.21점, '여자' 2.43±1.3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 세

정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뷰티관리 행동 중 전문관리 전체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19±1.09점, '여자' 2.14±1.0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미한 차이는 없었고,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그룹에서 약간 더 전문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했다.

6) 의복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능한 반팔보다 긴팔을 착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33명(2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125명(24.5%), '그렇지 않다' 119명(23.3%), '그렇다' 97명(19.0%), '매우 그렇다' 36명(7.1%)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남자' 2.45±1.19점, '여자' 2.68±1.2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능한 반팔보다 긴팔을 더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 한다' 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128명(2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126명(24.7%), '그렇지 않다' 69명(13.5%),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23.3%)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남자' 3.20±1.36점, '여자' 3.54±1.2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귀가 전 의복을 털고 들어온다' 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148명(2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09명(21.4%), '그렇다' 97명(19.0%), '그렇지 않다' 95명(18.6%), '매우 그렇다' 61명(12.0%)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1$),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남자' 2.59±1.29점, '여자' 3.00±1.2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귀가 전 의복을 털고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했다.

뷰티관리 행동 중 의복관리 전체 문항에서는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남자' 2.74±1.08점, '여자' 3.07±1.0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1$),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의복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에서 전체적으로 헤어관리와 전문관리를 제외한 화장관리, 피부관리($p<.01$), 의복관리($p<.01$), 화장관리와 식이관리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 성별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n(%)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x^2
헤어 관리	전문제품 구입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7(3.0)	15(5.4)	22(4.3)	
		그렇다	22(9.4)	26(9.4)	48(9.4)	
		보통이다	46(19.7)	81(29.3)	127(24.9)	10.457*
		그렇지 않다	67(28.6)	73(26.4)	140(27.5)	
		전혀 그렇지 않다	92(39.3)	81(29.3)	173(33.9)	
		평균점수 t-value	2.08±1.11	2.35±1.15	2.23±1.14	-2.680##
	취침 전 샴푸 여부	매우 그렇다	51(21.8)	77(27.9)	128(25.1)	
		그렇다	49(20.9)	70(25.4)	119(23.3)	
		보통이다	94(40.2)	53(19.2)	147(28.8)	25.594***
		그렇지 않다	20(8.5)	42(15.2)	62(12.2)	
		전혀 그렇지 않다	20(8.5)	34(12.3)	54(10.6)	
		평균점수 t-value	3.39±1.16	3.41±1.36	3.40±1.27	-.213
	헤어 스타일링제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35(15.0)	40(14.5)	75(14.7)	
		그렇다	44(18.8)	32(11.6)	76(14.9)	
		보통이다	68(29.1)	66(23.9)	134(26.3)	10.844*
		그렇지 않다	43(18.4)	62(22.5)	105(20.6)	
		전혀 그렇지 않다	44(18.8)	76(27.5)	120(23.5)	
		평균점수 t-value	2.93±1.31	2.63±1.76	2.77±1.35	2.480#
		전체 평균 t-value	2.79±0.87	2.79±1.01	2.79±0.95	.010
화장 관리	메이크업 제품구입	매우 그렇다	5(2.1)	27(9.8)	32(6.3)	
		그렇다	29(12.4)	38(13.8)	67(13.2)	
		보통이다	81(34.6)	78(28.4)	159(31.2)	14.579**
		그렇지 않다	54(23.1)	67(24.4)	121(23.8)	
		전혀 그렇지 않다	65(27.8)	65(23.6)	130(25.5)	
		평균점수 t-value	2.36±1.08	2.62±1.25	2.51±1.18	-2.266#
	기능성 화장품 사용	매우 그렇다	16(6.8)	29(10.5)	45(8.8)	
		그렇다	29(12.4)	59(21.5)	88(17.3)	
		보통이다	73(31.2)	65(23.6)	138(27.1)	11.444*
		그렇지 않다	55(23.5)	60(21.8)	115(22.6)	
		전혀 그렇지 않다	61(26.1)	62(22.5)	123(24.2)	
		평균점수 t-value	2.50±1.19	2.76±1.30	2.64±1.26	-2.255#
	기초 화장품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8(3.4)	15(5.5)	23(4.5)	
		그렇다	30(12.8)	29(10.5)	59(11.6)	
		보통이다	82(35.0)	68(24.7)	150(29.5)	9.969*
		그렇지 않다	57(24.4)	71(25.6)	128(25.1)	
		전혀 그렇지 않다	57(24.4)	92(33.5)	149(29.3)	
		평균점수 t-value	2.47±1.09	2.29±1.19	2.37±1.15	1.748
	화장품 선호도	매우 그렇다	13(5.6)	28(10.2)	41(8.1)	
		그렇다	20(8.5)	55(20.0)	75(14.7)	
		보통이다	86(36.8)	67(24.4)	153(30.1)	21.867***
		그렇지 않다	61(26.1)	61(22.2)	122(24.0)	
		전혀 그렇지 않다	54(23.1)	64(23.3)	118(23.2)	
		평균점수 t-value	2.47±1.10	2.72±1.29	2.61±1.21	-2.243#
		전체 평균 t-value	2.45±0.95	2.59±1.02	2.53±0.99	-1.584

*p<.05, **p<.01, ***p<.001, x^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표 4-4 계속]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χ^2
피부 관리	세안 시 신경	매우 그렇다	60(25.6)	106(38.4)	166(32.5)	
		그렇다	74(31.6)	84(30.4)	158(31.0)	
		보통이다	56(23.9)	51(18.5)	107(21.0)	18.210**
		그렇지 않다	17(7.3)	24(8.7)	41(8.0)	
		전혀 그렇지 않다	27(11.5)	11(4.0)	38(7.5)	
		평균점수 t-value	3.53±1.26	3.91±1.12	3.73±1.20	-3.584###
	마사지나 팩	매우 그렇다	32(13.7)	43(15.6)	75(14.7)	
		그렇다	41(17.5)	56(20.3)	97(19.0)	
		보통이다	52(22.2)	100(36.2)	152(29.8)	26.185***
		그렇지 않다	36(15.4)	38(13.8)	74(14.5)	
		전혀 그렇지 않다	73(31.2)	39(14.1)	112(22.0)	
		평균점수 t-value	2.67±1.42	3.09±1.23	2.90±1.34	-3.596###
	개인위생 신경	매우 그렇다	64(27.4)	77(27.9)	141(27.6)	
		그렇다	67(28.6)	84(30.4)	151(29.6)	
		보통이다	55(23.5)	67(24.3)	122(23.9)	2.360
		그렇지 않다	23(9.8)	29(10.5)	52(10.2)	
		전혀 그렇지 않다	25(10.7)	19(6.9)	44(8.6)	
		평균점수 t-value	3.52±1.26	3.62±1.19	3.57±1.23	-.896
		전체 평균 t-value	3.23±1.13	3.53±1.02	3.40±1.08	-3.147##
식이 관리	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	매우 그렇다	24(10.3)	24(8.7)	48(9.4)	
		그렇다	30(12.8)	47(17.0)	77(15.1)	
		보통이다	55(23.5)	88(31.9)	143(28.0)	10.157*
		그렇지 않다	72(30.8)	57(20.7)	129(25.3)	
		전혀 그렇지 않다	53(22.6)	60(21.7)	113(22.2)	
		평균점수 t-value	2.57±1.25	2.70±1.22	2.64±1.24	-1.181
	유해물질 배출 위해 물 섭취량	매우 그렇다	45(19.2)	63(22.8)	108(21.2)	
		그렇다	51(21.8)	81(29.3)	132(25.9)	
		보통이다	86(36.8)	71(25.7)	157(30.8)	10.128*
		그렇지 않다	29(12.4)	41(14.9)	70(13.7)	
		전혀 그렇지 않다	23(9.8)	20(7.2)	43(8.4)	
		평균점수 t-value	3.28±1.19	3.46±1.20	3.38±1.20	-1.638
	중금속 배출 위해 특정 음식 섭취 여부	매우 그렇다	24(10.3)	31(11.2)	55(10.8)	
		그렇다	34(14.5)	50(18.1)	84(16.5)	
		보통이다	75(32.1)	82(19.7)	157(30.8)	1.157
		그렇지 않다	54(23.1)	62(22.5)	116(22.7)	
		전혀 그렇지 않다	47(20.1)	51(18.5)	98(19.2)	
		평균점수 t-value	2.72±1.23	2.81±1.25	2.77±1.24	-.849
		전체 평균 t-value	2.85±1.07	2.99±1.07	2.92±1.07	-1.393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표 4-4 계속]

변수			(n=234)	여자 (n=275)	전체 (n=510)	χ^2
전문 관리	피부과 레이저 시술 여부	매우 그렇다	10(4.3)	9(3.3)	19(3.7)	
		그렇다	24(10.3)	15(5.4)	39(7.6)	
		보통이다	33(14.1)	38(13.8)	71(13.9)	5.191
		그렇지 않다	53(22.6)	62(22.5)	115(22.5)	
		전혀 그렇지 않다	114(48.7)	152(55.1)	266(52.2)	
		평균점수 t-value	1.99±1.19	1.79±1.07	1.88±1.13	1.924
	피부 문제발생 시 피부과나 전문병원 방문 여부	매우 그렇다	11(4.7)	14(5.1)	25(4.9)	
		그렇다	50(21.4)	39(14.1)	89(17.5)	
		보통이다	40(17.1)	51(18.5)	91(17.8)	4.713
		그렇지 않다	48(20.5)	59(21.4)	107(21.0)	
		전혀 그렇지 않다	85(36.3)	113(40.9)	198(38.8)	
		평균점수 t-value	2.38±1.29	2.21±1.25	2.29±1.27	1.465
	눈 세정제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15(6.4)	22(8.0)	37(7.3)	
		그렇다	23(9.8)	40(14.5)	63(12.4)	
		보통이다	45(19.2)	68(24.6)	113(22.2)	10.898*
		그렇지 않다	68(29.1)	50(18.1)	118(23.1)	
		전혀 그렇지 않다	83(35.5)	96(34.8)	179(35.1)	
		평균점수 t-value	2.23±1.21	2.43±1.30	2.34±1.26	-1.787
		전체 평균 t-value	2.19±1.09	2.14±1.00	2.16±1.04	
의복 관리	반팔보다 긴팔 착용 여부	매우 그렇다	13(5.6)	23(8.3)	36(7.1)	
		그렇다	38(16.2)	59(21.4)	97(19.0)	
		보통이다	50(21.4)	75(27.2)	125(24.5)	17.745**
		그렇지 않다	74(31.6)	45(16.3)	119(23.3)	
		전혀 그렇지 않다	59(25.2)	74(26.8)	133(26.1)	
		평균점수 t-value	2.45±1.19	2.68±1.29	2.58±1.25	-2.054#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 착용 여부	매우 그렇다	59(25.2)	69(25.0)	128(25.1)	
		그렇다	34(14.5)	94(34.1)	128(25.1)	
		보통이다	69(29.5)	57(20.7)	126(24.7)	28.790***
		그렇지 않다	39(16.7)	30(10.9)	69(13.5)	
		전혀 그렇지 않다	33(14.1)	26(10.9)	59(11.6)	
		평균점수 t-value	3.20±1.36	3.54±1.23	3.39±1.30	-2.974##
	외출 후 의복을 털고 들어 오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22(9.4)	39(14.1)	61(12.0)	
		그렇다	36(15.4)	61(22.1)	97(19.0)	
		보통이다	65(27.8)	83(30.1)	148(29.0)	13.324**
		그렇지 않다	47(20.1)	48(17.4)	95(18.6)	
		전혀 그렇지 않다	64(27.4)	45(16.3)	109(21.4)	
		평균점수 t-value	2.59±1.29	3.00±1.27	2.82±1.29	-3.599###
		전체 평균 t-value	2.74±1.08	3.07±1.05	2.92±1.08	-3.441##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4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를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4.38±0.79점, '없다' 4.35±0.8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84±0.94점, '없다' 4.11±0.8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62±0.92점, '없다' 3.96±0.9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34±0.98점, '없다' 3.63±1.0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39±1.17점, '없다' 3.96±0.94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게 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93±0.99점, '없다' 4.07±0.99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였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55±1.19점, '없다' 3.58±1.28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각종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도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67±0.90점, '없다' 3.99±0.8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에서 전체적인 문항의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있다' 3.71±0.69점, '없다' 3.96±0.7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5]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n(%)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x^2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다	126(55.0)	155(55.2)	281(55.1)	2.401
	그렇다	70(30.6)	85(30.2)	155(30.4)	
	보통이다	29(12.75)	31(11.0)	60(11.8)	
	그렇지 않다	3(1.3)	5(1.8)	8(1.6)	
	전혀 그렇지 않다	1(0.4)	5(1.8)	6(1.2)	
	평균점수 t-value	4.38±0.79	4.35±0.87	4.37±0.83	.428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60(26.2)	108(38.4)	168(32.9)	11.819*
	그렇다	95(41.5)	109(38.8)	204(40.1)	
	보통이다	54(23.6)	52(18.5)	106(20.8)	
	그렇지 않다	17(7.4)	11(3.9)	28(5.5)	
	전혀 그렇지 않다	3(1.3)	1(0.4)	4(0.8)	
	평균 점수 t-value	3.84±0.94	4.11±0.86	3.99±0.91	-3.389##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45(19.7)	90(32.0)	135(26.5)	22.764***
	그렇다	78(34.1)	111(39.5)	189(37.1)	
	보통이다	82(35.8)	63(22.4)	145(28.5)	
	그렇지 않다	23(10.0)	13(4.6)	36(7.1)	
	전혀 그렇지 않다	1(0.0)	4(1.4)	5(1.0)	
	평균 점수 t-value	3.62±0.92	3.96±0.92	3.81±0.94	-4.078###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32(14.0)	68(24.2)	100(19.6)	16.776**
	그렇다	59(25.8)	89(31.7)	148(29.0)	
	보통이다	100(43.7)	87(31.0)	187(36.7)	
	그렇지 않다	31(13.5)	25(8.9)	56(11.0)	
	전혀 그렇지 않다	7(3.1)	12(4.3)	19(3.7)	
	평균 점수 t-value	3.34±0.98	3.63±1.07	3.50±1.04	-3.104##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매우 그렇다	42(18.3)	93(33.1)	135(26.5)	37.005***
	그렇다	77(33.6)	108(38.4)	185(36.3)	
	보통이다	54(23.6)	59(21.0)	113(22.2)	
	그렇지 않다	40(17.5)	18(6.4)	58(11.4)	
	전혀 그렇지 않다	16(7.0)	3(1.1)	19(3.7)	
	평균 점수 t-value	3.39±1.17	3.96±0.94	3.70±1.09	-6.095###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게 된다	매우 그렇다	75(32.8)	114(40.6)	189(37.1)	4.335
	그렇다	89(38.9)	103(36.7)	192(37.6)	
	보통이다	42(18.3)	41(14.6)	83(16.3)	
	그렇지 않다	19(8.3)	17(6.0)	36(7.1)	
	전혀 그렇지 않다	4(1.7)	6(2.1)	10(2.0)	
	평균 점수 t-value	3.93±0.99	4.07±0.99	4.01±0.99	-1.681

미세먼지 정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	58(25.3)	82(29.2)	140(27.5)	
	그렇다	67(29.3)	84(29.9)	151(29.6)	
	보통이다	63(27.5)	59(21.0)	122(23.9)	4.208
	그렇지 않다	24(10.5)	27(9.6)	51(10.0)	
	전혀 그렇지 않다	17(7.4)	29(10.3)	46(9.0)	
	평균 점수 t-value	3.55±1.19	3.58±1.28	3.56±1.24	-.310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46(20.1)	88(31.3)	134(26.3)	
	그렇다	83(36.2)	120(42.7)	203(39.8)	
	보통이다	78(34.1)	56(19.9)	134(26.3)	21.769***
	그렇지 않다	22(9.6)	15(5.3)	37(7.3)	
	전혀 그렇지 않다	0(0.0)	2(0.7)	2(0.4)	
	평균 점수 t-value	3.67±0.90	3.99±0.89	3.84±0.91	-3.978###
	평균 t-value	3.71±0.69	3.96±0.72	3.85±0.72	-3.819###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5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

1)관심영역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를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92±1.15점, '없다' 3.32±1.0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이를 무시하는 편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28±1.20점, '없다' 2.19±1.1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54±1.04점, '여자' 2.96±1.07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심각성영역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97±0.96점, ‘없다’ 3.96±1.0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그룹 모두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53±1.08점, ‘없다’ 2.60±1.08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45±1.02점, ‘없다’ 3.79±1.00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4.37±0.81점, ‘없다’ 4.40±0.84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체감도 영역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61±1.25점, ‘없다’ 3.53±1.18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76±1.08점, ‘없다’ 3.67±1.1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악화 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16±1.26점, ‘없다’ 3.37±1.28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41±1.14점, ‘없다’ 3.65±1.1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유·무에 따른 메세먼지 위험 인식도에서 전체적으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있다’ 3.27±0.55점, ‘없다’ 3.40±0.61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6]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

n(%)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χ^2
관심 영역	관련한 정보	매우 그렇다	27(11.8)	43(18.8)	73(14.3)	23.737***
		그렇다	43(18.8)	76(27.0)	119(23.3)	
		보통이다	62(27.1)	96(34.2)	158(31.0)	
		그렇지 않다	78(34.1)	49(17.4)	127(24.9)	
		전혀 그렇지 않다	19(8.3)	14(5.0)	33(6.5)	
		평균점수 t-value	2.92±1.15	3.32±1.09	3.14±1.13	-4.075###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무시 여부	매우 그렇다	9(3.9)	10(3.6)	19(3.7)	3.194
		그렇다	35(15.3)	31(11.0)	66(12.9)	
		보통이다	47(20.5)	63(24.2)	115(22.5)	
		그렇지 않다	59(25.8)	66(23.5)	125(24.5)	
		전혀 그렇지 않다	79(34.5)	106(37.7)	185(36.3)	
		평균점수 t-value	2.28±1.20	2.19±1.16	2.23±1.17	.873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	매우 그렇다	7(3.1)	20(7.1)	27(5.3)	20.209***
		그렇다	27(11.8)	70(24.9)	97(19.0)	
		보통이다	97(42.4)	98(34.9)	195(38.2)	
		그렇지 않다	49(21.4)	66(23.5)	115(22.5)	
		전혀 그렇지 않다	49(21.4)	27(9.6)	76(14.9)	
		평균점수 t-value	2.54±1.04	2.96±1.07	2.77±1.08	-4.513###
심각성 영역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도	매우 그렇다	75(32.8)	104(37.0)	179(35.1)	5.089
		그렇다	95(41.5)	92(32.7)	187(36.7)	
		보통이다	38(16.6)	61(21.7)	99(19.4)	
		그렇지 않다	18(7.9)	20(7.1)	38(7.5)	
		전혀 그렇지 않다	3(1.3)	4(1.4)	7(1.4)	
		평균점수 t-value	3.97±0.96	3.97±1.00	3.97±0.98	-.033
	미세먼지 발생 위험 통제여부	매우 그렇다	9(3.9)	13(4.6)	22(4.3)	.639
		그렇다	30(13.1)	38(13.5)	68(13.3)	
		보통이다	83(36.2)	106(37.7)	189(37.1)	
		그렇지 않다	58(25.3)	71(25.3)	129(25.3)	
		전혀 그렇지 않다	49(21.4)	53(18.9)	102(20.0)	
		평균점수 t-value	2.53±1.08	2.60±1.08	2.57±1.08	-.720
	미세먼지로 비롯되는 위험도	매우 그렇다	41(17.9)	64(27.9)	123(24.1)	16.122**
		그렇다	64(27.9)	91(32.4)	155(30.4)	
		보통이다	89(38.9)	79(28.1)	168(32.9)	
		그렇지 않다	27(11.8)	26(9.3)	53(10.4)	
		전혀 그렇지 않다	8(3.5)	3(1.1)	11(2.2)	
		평균점수 t-value	3.45±1.02	3.79±1.00	3.64±1.02	-3.815###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 세대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126(55.0)	68(29.7)	291(57.1)	8.211
		그렇다	68(29.7)	73(26.0)	141(27.6)	
		보통이다	28(12.2)	37(13.2)	65(12.7)	
		그렇지 않다	7(3.1)	2(0.7)	9(1.8)	
		전혀 그렇지 않다	0(0.0)	4(1.4)	4(0.8)	
		평균점수 t-value	4.37±0.81	4.40±0.84	4.38±0.83	-.428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표 4-6 계속] n(%)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x^2
체감도 영역	호흡곤란 여부	매우 그렇다	70(30.6)	69(24.6)	139(27.3)	
		그렇다	65(28.4)	87(31.0)	152(29.8)	
		보통이다	47(20.5)	64(22.8)	111(21.8)	4.668
		그렇지 않다	29(12.7)	46(16.4)	75(14.7)	
		전혀 그렇지 않다	18(7.9)	15(5.3)	33(6.5)	
		평균점수 t-value	3.61±1.25	3.53±1.18	3.57±1.21	.750
	두통이나, 눈, 목 등의 따가움 여부	매우 그렇다	59(25.8)	75(26.7)	134(26.3)	
		그렇다	98(42.8)	96(34.2)	194(38.0)	
		보통이다	44(19.2)	61(21.7)	105(20.6)	10.549*
		그렇지 않다	15(6.6)	39(13.9)	54(10.6)	
		전혀 그렇지 않다	13(5.7)	10(3.63)	23(4.5)	
		평균점수 t-value	3.76±1.08	3.67±1.11	3.71±1.10	1.005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보유 질병 악화 여부	매우 그렇다	39(17.0)	67(23.8)	106(20.8)	
		그렇다	56(24.5)	74(26.3)	130(25.5)	
		보통이다	66(28.8)	66(23.5)	132(25.9)	5.248
		그렇지 않다	38(16.6)	45(16.0)	83(16.3)	
		전혀 그렇지 않다	30(13.1)	29(10.3)	59(11.6)	
		평균점수 t-value	3.16±1.26	3.37±1.28	3.28±1.28	-1.904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경험 여부	매우 그렇다	45(19.7)	77(27.4)	122(23.9)	
		그렇다	64(27.9)	96(34.2)	160(31.4)	
		보통이다	77(33.6)	55(19.6)	132(25.9)	16.217**
		그렇지 않다	26(11.4)	39(13.9)	65(12.7)	
		전혀 그렇지 않다	17(7.4)	14(5.0)	31(6.1)	
		평균점수 t-value	3.41±1.14	3.65±1.16	3.54±1.16	-2.339#
		전체평균 t-value	3.27±0.55	3.40±0.61	3.34±0.59	-2.531#

*p<.05, **p<.01, ***p<.001, x^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6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1) 헤어관리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16±1.10점, '없다' 2.28±1.1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취침 전 머리를 감는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43±1.22점, '없다' 3.38±1.3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취침 전 머리를 감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헤어 스타일링제를 바르지 않는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71±1.26점, '없다' 2.81±1.4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헤어 스타일링제를 바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에서 문항에서는 집단 간에 문항 평균점수에서 '있다' 2.76±0.87점, '없다' 2.82±1.0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헤어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2) 화장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메이크업 제품구입에 더 신경 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49±1.16점, '없다' 2.53±1.2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메이크업 제품구입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안티폴루션 제품, 썬크림 등)’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55±1.18점, ‘없다’ 2.71±1.3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초 화장품만 사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44±1.13점, ‘없다’ 2.31±1.1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초 화장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화장품을 선호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61±1.17점, ‘없다’ 2.60±1.2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뷰티관리 행동 중 화장관리 전체 문항의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 2.52±0.94점, ‘없다’ 2.53±1.03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그룹 모두 화장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피부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72±1.16점, ‘없다’ 3.74±1.24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86±1.34점, ‘없다’ 2.94±1.33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콧속 청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69±1.20점, '없다' 3.48±1.2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콧속 청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관리 전체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41±1.04점, '없다' 3.38±1.1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피부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식이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56±1.11점, '없다' 2.71±1.33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에서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3.29±1.16점, '없다' 3.45±1.2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정음식을 챙겨 먹는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68±1.23점, '없다' 2.84±1.29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정음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행동 중 식이관리 전체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84±0.95점, '없다' 3.00±1.1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미한 차이는 없었고,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식이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전문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을 받는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있다’ 2.01±1.14점, ‘없다’ 1.78±1.1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과나 전문병원을 이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있다’ 2.41±1.26점, ‘없다’ 2.19±1.26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과나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 세정제를 사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41±1.26점, ‘없다’ 2.27±1.2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없다’에 ‘있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행동 중 전문관리 전체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27±1.04점, ‘없다’ 2.08±1.03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 그룹에서 전문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의복관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능한 반팔보다 긴팔을 착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있다’ 2.39±1.14점, ‘없다’ 2.73±1.31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능한 반팔보다 긴팔을 더 착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 한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있다’ 3.34±1.26점, ‘없다’ 3.42±1.34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귀가 전 의복을 털고 들어온다’ 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도 ‘있다’ 2.63±1.31점, ‘없다’ 2.99±1.26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없다’에 비해 ‘있다’그룹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귀가 전 좀 더 의복을 털고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뷰티관리 행동 중 의복관리 전체 문항에서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는 ‘있다’ 2.79±1.00점, ‘없다’ 3.03±1.1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대체적으로 ‘있다’에 비해 ‘없다’ 그룹에서 의복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에서 전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는 피부관리와 전문관리($p<.05$)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는 헤어관리, 화장관리, 식이관리, 의복관리($p<.05$)에서 더 뷰티관리 행동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n(%)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x^2
헤어 관리	구입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10(4.4)	12(4.3)	22(4.3)	4.540
		그렇다	15(6.6)	33(11.7)	48(9.4)	
		보통이다	56(24.5)	71(25.3)	127(24.9)	
		그렇지 않다	68(29.7)	72(25.6)	140(27.5)	
		전혀 그렇지 않다	80(34.9)	93(33.1)	173(33.9)	
		평균점수 t-value	2.16±1.10	2.28±1.16	2.23±1.14	1.255
	취침 전 샴푸 여부	매우 그렇다	58(25.3)	70(24.9)	128(25.1)	5.820
		그렇다	48(21.0)	71(25.3)	119(23.3)	
		보통이다	76(33.2)	71(25.3)	147(28.8)	
		그렇지 않다	28(12.2)	34(12.1)	62(12.2)	
		전혀 그렇지 않다	19(8.3)	35(12.5)	54(10.6)	
		평균점수 t-value	3.43±1.22	3.38±1.31	3.40±1.27	.415
	헤어 스타일링제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28(12.2)	47(16.7)	75(14.7)	16.692**
		그렇다	25(10.9)	51(18.1)	76(14.9)	
		보통이다	78(34.1)	56(19.9)	134(26.3)	
		그렇지 않다	49(21.4)	56(19.9)	105(20.6)	
		전혀 그렇지 않다	49(21.4)	71(25.3)	120(23.5)	
		평균점수 t-value	2.71±1.26	2.81±1.42	2.77±1.35	-.826
		전체 평균 t-value	2.76±0.87	2.82±1.02	2.79±0.95	-.704
화장 관리	메이크업 제품구입	매우 그렇다	13(14.4)	19(6.8)	32(6.3)	13.142*
		그렇다	33(14.4)	34(12.1)	67(13.2)	
		보통이다	60(26.2)	99(35.4)	159(31.2)	
		그렇지 않다	70(30.6)	51(18.2)	121(23.8)	
		전혀 그렇지 않다	53(23.1)	77(27.5)	130(25.5)	
		평균점수 t-value	2.49±1.16	2.53±1.20	2.51±1.18	-.340
	기능성 화장품 사용	매우 그렇다	14(6.1)	31(11.1)	45(8.8)	17.633**
		그렇다	40(17.5)	48(17.1)	88(17.3)	
		보통이다	55(24.0)	83(29.6)	138(27.1)	
		그렇지 않다	70(30.6)	45(16.1)	115(22.6)	
		전혀 그렇지 않다	50(21.8)	73(26.1)	123(24.2)	
		평균점수 t-value	2.55±1.18	2.71±1.31	2.64±1.26	-1.390
	기초 화장품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12(10.5)	11(3.9)	23(4.5)	11.299*
		그렇다	24(10.5)	35(12.5)	59(11.6)	
		보통이다	70(30.6)	80(28.6)	150(29.5)	
		그렇지 않다	70(30.6)	58(20.7)	128(25.1)	
		전혀 그렇지 않다	53(23.1)	96(34.2)	149(29.3)	
		평균점수 t-value	2.44±1.13	2.31±1.17	2.37±1.15	1.272
	화장품 선호도	매우 그렇다	18(7.9)	23(8.2)	41(8.1)	5.287
		그렇다	28(12.2)	47(16.8)	75(14.7)	
		보통이다	76(33.2)	77(27.5)	153(30.1)	
		그렇지 않다	60(26.2)	62(22.1)	122(24.0)	
		전혀 그렇지 않다	47(20.5)	71(25.4)	118(23.2)	
		평균점수 t-value	2.61±1.17	2.60±1.25	2.61±1.21	.031
		전체 평균 t-value	2.52±0.94	2.53±1.03	2.53±0.99	-.183

*p<.05, **p<.01, ***p<.001, x^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표 4-7 계속]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χ^2
피부 관리	시 신경	매우 그렇다	64(27.9)	102(36.3)	166(32.5)	
		그렇다	86(37.6)	72(25.6)	158(31.0)	
		보통이다	47(20.5)	60(21.4)	107(21.0)	10.554*
		그렇지 않다	14(6.1)	27(9.6)	41(8.0)	
		전혀 그렇지 않다	18(7.9)	20(7.1)	38(7.5)	
		평균점수 t-value	3.72±1.16	3.74±1.24	3.73±1.20	-.257
	마사지나 팩	매우 그렇다	32(14.0)	43(15.3)	75(14.7)	
		그렇다	43(18.8)	54(19.2)	97(19.0)	
		보통이다	67(29.3)	85(30.2)	152(29.8)	.504
		그렇지 않다	34(14.8)	40(14.2)	74(14.5)	
		전혀 그렇지 않다	53(23.1)	59(21.0)	112(22.0)	
		평균점수 t-value	2.86±1.34	2.94±1.33	2.90±1.34	-.671
	개인위생 신경	매우 그렇다	67(29.3)	74(26.3)	141(27.6)	
		그렇다	77(33.6)	74(26.3)	151(29.6)	
		보통이다	50(21.8)	72(25.6)	122(23.9)	7.663
		그렇지 않다	16(7.0)	36(12.8)	52(10.2)	
		전혀 그렇지 않다	19(8.3)	25(8.9)	44(8.6)	
		평균점수 t-value	3.69±1.20	3.48±1.25	3.57±1.23	1.840
		전체 평균 t-value	3.41±1.04	3.38±1.11	3.40±1.08	.324
식이 관리	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	매우 그렇다	12(5.2)	36(12.8)	48(9.4)	
		그렇다	32(14.0)	45(16.0)	77(15.1)	
		보통이다	73(31.9)	70(24.9)	143(28.0)	13.976*
		그렇지 않다	67(29.3)	62(22.1)	129(25.3)	
		전혀 그렇지 않다	45(19.7)	68(24.2)	113(22.2)	
		평균점수 t-value	2.56±1.11	2.71±1.33	2.64±1.24	-1.383
	유해물질 배출 위해 물 섭취량	매우 그렇다	39(17.0)	69(24.6)	108(21.2)	
		그렇다	59(25.8)	73(26.0)	132(25.9)	
		보통이다	81(35.4)	76(27.0)	157(30.8)	6.827
		그렇지 않다	29(12.4)	41(14.6)	70(13.7)	
		전혀 그렇지 않다	21(9.2)	22(7.8)	43(8.4)	
		평균점수 t-value	3.29±1.16	3.45±1.22	3.38±1.20	-1.501
	중금속 배출 위해 특정 음식 섭취 여부	매우 그렇다	18(7.9)	37(13.2)	55(10.8)	
		그렇다	32(14.0)	52(18.5)	84(16.5)	
		보통이다	82(35.8)	75(26.7)	157(30.8)	8.317
		그렇지 않다	52(22.7)	64(22.8)	116(22.7)	
		전혀 그렇지 않다	45(19.7)	53(18.9)	98(19.2)	
		평균점수 t-value	2.68±1.17	2.84±1.29	2.77±1.24	-1.509
		전체 평균 t-value	2.84±0.95	3.00±1.15	2.92±1.07	-1.675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표 4-7 계속]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χ^2
전문 관리	피부과 레이저 시술 여부	매우 그렇다	7(3.1)	12(4.3)	19(3.7)	
		그렇다	24(10.5)	15(5.3)	39(7.6)	
		보통이다	36(15.7)	35(12.5)	71(13.9)	11.840*
		그렇지 않다	59(25.8)	56(19.9)	115(22.5)	
		전혀 그렇지 않다	103(45.0)	163(58.0)	266(52.2)	
		평균점수 t-value	2.01±1.14	1.78±1.12	1.88±1.13	2.277#
	피부 문제발생 시 피부과나 전문병원 방문 여부	매우 그렇다	14(6.1)	11(3.9)	25(4.9)	
		그렇다	41(17.9)	48(17.1)	89(17.5)	
		보통이다	44(19.2)	47(16.7)	91(17.8)	7.506
		그렇지 않다	55(24.0)	52(18.5)	107(21.0)	
		전혀 그렇지 않다	75(32.8)	123(43.8)	198(38.8)	
		평균점수 t-value	2.41±1.26	2.19±1.26	2.29±1.27	1.920
	눈 세정제 사용 여부	매우 그렇다	19(8.3)	18(6.4)	37(7.3)	
		그렇다	28(12.2)	35(12.5)	63(12.4)	
		보통이다	50(21.8)	63(22.4)	113(22.2)	7.005
		그렇지 않다	63(27.5)	55(19.6)	118(23.1)	
		전혀 그렇지 않다	69(30.1)	110(39.1)	179(35.1)	
		평균점수 t-value	2.41±1.26	2.27±1.27	2.34±1.26	1.208
		전체 평균 t-value	2.27±1.04	2.08±1.03	2.16±1.04	2.097#
의복 관리	반팔보다 긴팔 착용 여부	매우 그렇다	12(5.2)	24(8.5)	36(7.1)	
		그렇다	28(12.2)	69(24.6)	97(19.0)	
		보통이다	57(24.9)	68(24.2)	125(24.5)	25.074***
		그렇지 않다	73(31.9)	46(16.4)	119(23.3)	
		전혀 그렇지 않다	59(25.8)	74(26.3)	133(26.1)	
		평균점수 t-value	2.39±1.14	2.73±1.31	2.58±1.25	-3.006##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 착용 여부	매우 그렇다	51(22.3)	77(27.4)	128(25.1)	
		그렇다	57(24.9)	71(25.3)	128(25.1)	
		보통이다	67(29.3)	59(21.0)	126(24.7)	5.354
		그렇지 않다	28(12.2)	41(14.6)	69(13.5)	
		전혀 그렇지 않다	26(11.4)	33(11.7)	59(11.6)	
		평균점수 t-value	3.34±1.26	3.42±1.34	3.39±1.30	-.644
	외출 후 의복을 털고 들어 오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22(9.6)	39(13.9)	61(12.0)	
		그렇다	40(17.5)	57(20.3)	97(19.0)	
		보통이다	62(27.1)	86(30.6)	148(29.0)	10.340*
		그렇지 않다	42(18.3)	53(18.9)	95(18.6)	
		전혀 그렇지 않다	63(27.5)	46(16.4)	109(21.4)	
		평균점수 t-value	2.63±1.31	2.96±1.26	2.82±1.29	-2.892##
		전체 평균 t-value	2.79±1.00	3.03±1.12	2.92±1.08	-2.577#

*p<.05, **p<.01, ***p<.001, χ^2 : Chi-square test
#p<.05, ##p<.01, ###p<.001, t-value is independent sample t-test

4.2.7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특성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특성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뷰티관리 중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있다'의 경우 '피부관리' 14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헤어관리' 28명(12.2%), '의복관리' 24명(10.5%), '식이관리' 19명(8.3%), '화장관리' 14명(6.1%) 순으로 나타났고, '없다'의 경우에는 '피부관리' 152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이관리' 45명(16.0%), '헤어관리' 38명(13.5%), '의복관리' 27명(9.6%), '화장관리' 19명(6.8%)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에서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뷰티관리를 주로 언제 하십니까? 에서 전체적으로 '여가시간이 생겼을 때' 17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108명(21.2%), '중요한 역속이 있을 때' 85명(16.7%),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51명(10.0%), '주말에' 47명(9.2%), '기타' 31명(3.1%), '뷰티상품을 구매하기 전, 후에' 13명(2.5%)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여가시간이 생겼을 때와 정기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뷰티관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귀하는 뷰티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 '있다'의 경우 '자기만족' 146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36명(15.7%), '주변의식' 27명(11.8%), '이성교제' 12(5.2%), '취업' 5명(2.2%), '기타' 3명(13%) 순으로 나타났고, '없다'의 경우에서도 '자기만족' 134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95명(33.8%), '주변의식' 26명(9.3%), '기타' 19명(6.8%), '취업' 6명(2.1%), '이성교제' 1명(0.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모두 자기만족과 건강을 위해서 뷰티관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다.

'귀하는 뷰티관리 횟수는 평균 몇 회 입니까?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회' 146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1∽2회' 130명(25.5%), '2

∽3달에 1회 이하' 102명(20.0%), '기타' 56명(11.0%), '1주일에 3회 이상' 41명(8.0%), '한 달에 3회 이상' 36명(6.9%) 순으로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대체적으로 '있다'에서는 한 달에 1∽2회와 2∽3달에 1회 이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없다'에서는 1주일에 1∽2회와 한 달에 1∽2회를 뷰티관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귀하는 뷰티관리 지출하는 비용은 1달 평균 얼마입니까? 에서 전체적으로 '5만원 미만' 256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만원∽10만원 미만' 158명(31.0%), '10만원∽20만원 미만' 71명(13.9%), '20만원∽30만원 미만' 13명(2.5%), '30만원 이상' 12명(2.4%)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모두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5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 순으로 1개월에 뷰티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 관리행동 특성에서 뷰티관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뷰티관리 평균 횟수 등의 문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뷰티관리 부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 뷰티관리 실시 시기, 뷰티관리 지출 비용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표 4-8]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특성

n(%)

변수		(n=229)	없다 (n=281)	전체 (n=510)	x^2
중요도	헤어관리	28(12.2)	38(13.5)	66(12.9)	8.144
	화장관리	14(6.1)	19(6.8)	33(6.5)	
	피부관리	144(63.2)	152(54.1)	296(58.2)	
	식이관리	19(8.3)	45(16.0)	64(12.6)	
	의복관리	24(10.5)	27(9.6)	51(10.0)	
실시 시기	여가시간이 생겼을 때	70(30.6)	105(37.4)	175(34.3)	10.216
	주말에	18(7.9)	29(10.3)	47(9.2)	
	정기적으로	52(22.7)	56(19.9)	108(21.2)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22(9.6)	29(10.3)	51(10.0)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48(21.0)	37(13.2)	85(16.7)	
	뷰티상품을 구매하기 전, 후에	8(3.5)	5(1.8)	13(2.5)	
	기타	11(4.8)	20(7.1)	31(6.1)	
뷰티관리 이유	건강	36(15.7)	95(33.8)	131(25.7)	43.289***
	취업	5(2.2)	6(2.1)	11(2.2)	
	자기만족	146(63.8)	134(47.7)	280(54.9)	
	주변의식	27(11.8)	26(9.3)	53(10.4)	
	이성교제	12(5.2)	1(0.4)	13(2.5)	
	기타	3(1.3)	19(6.8)	22(4.3)	
평균 횟수	1주일에 1~2회	70(30.6)	60(21.4)	130(25.5)	14.353*
	1주일에 3회 이상	20(8.7)	21(7.5)	41(8.0)	
	한 달에 1~2회	67(29.3)	79(28.1)	146(28.6)	
	한 달에 3회 이상	13(5.7)	22(7.8)	35(6.9)	
	2~3달에 1회 이하	45(19.7)	57(20.3)	102(20.0)	
	기타	14(6.1)	42(14.9)	56(11.0)	
지출 비용	5만원 미만	112(48.9)	144(51.2)	256(50.2)	1.672
	5만원 ~ 10만원 미만	75(32.8)	83(29.5)	158(31.0)	
	10만원 ~ 20만원 미만	31(13.5)	40(14.2)	71(13.9)	
	20만원 ~ 30만원 미만	7(3.1)	6(2.1)	13(2.5)	
	30만원 이상	4(1.7)	8(2.8)	12(2.4)	

*p<.05, ***p<.01, ***p<.001, x^2 : Chi-square test

〈연구문제2〉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4.2.8 성별에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144),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관리(.138), 의복관리(-.151)에서 아주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관리,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9]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

수	성별	관심도	위험인식	헤어	화장	피부	식이	전문	의복
성별	-								
인식 및 관심도	.0.37	-							
위험 인식	.144**	.638***	-						
뷰티행동 헤어	.000	.398**	.472**	-					
뷰티행동 화장	.070	.364**	.517**	.663**	-				
뷰티행동 피부	.138**	.509**	.576**	.567**	.618**	-			
뷰티행동 식이	.062	.472**	.549**	.599**	.670**	.662**	-		
뷰티행동 전문	-.025	.276**	.391**	.520**	.654**	.455**	.567**	-	
뷰티행동 의복	-.151**	.523**	.554**	.606**	.643**	.675**	.665**	.601**	-

*p<.05, **p<.01

4.2.9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행동 간 상관관계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167), 위험 인식(.112), 뷰티행동 중 전문관리(-.093), 의복관리(.114)에서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중 전문관리, 의복관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0]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

수	자녀	관심도	위험인식	헤어	화장	피부	식이	전문	의복
성별	-								
인식 및 관심도	.167**	-							
위험 인식	.112*	.638***	-						
뷰티행동 헤어	.031	.398**	.472**	-					
뷰티행동 화장	.008	.364**	.517**	.663**	-				
뷰티행동 피부	-.014	.509**	.576**	.567**	.618**	-			
뷰티행동 식이	-.074	.472**	.549**	.599**	.670**	.662**	-		
뷰티행동 전문	-.093*	.276**	.391**	.520**	.654**	.455**	.567**	-	
뷰티행동 의복	.114*	.523**	.554**	.616**	.643**	.675**	.665**	.601**	-

*p<.05, **p<.01

〈연구문제3〉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

4.2.10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5.528으로 p<.0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 값은 .081로 통계에 이용된 변인들의 0.08%가 표준회귀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106, p<.01), 위험 인식(.150, p<.01),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083, p<.05), 전문관리(-.090, p<.01), 의복관리(.124, p<.001)에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뷰티관리 행동 중 화장관리, 피부관리, 식이관리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 전문관리, 의복관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1]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간 따른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 계수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B*				
(상수)	1.342	.135		9.949	.000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106	.041	-1.153	-2.604	.009		
미세먼지 위험 인식	.150	.052	.179	2.862	.004		
뷰티관리 행동 - 헤어관리	-.083	.032	-.160	-2.582	.010		
뷰티관리 행동 - 화장관리	.029	.036	.058	.808	.419	5.528***	.081
뷰티관리 행동 - 피부관리	.048	.031	.105	1.573	.116		
뷰티관리 행동 - 식이관리	-.022	.032	-.047	-.694	.488		
뷰티관리 행동 - 전문관리	-.090	.029	-.090	-3.124	.002		
뷰티관리 행동 - 의복관리	.124	.033	.268	3.764	.000		
독립변수 : 성별 여부							
R=285, R^2 =.081, 수정된 R^2 =.066							

4.2.11 자녀 유·무에 따른 회귀분석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F=6.665으로 p<.0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 값은 .096로 통계에 이용된 변인들의 0.09%가 표준회귀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096, p<.05),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118, p<.001), 전문 관리(-.128, p<.001), 의복관리(.117, p<.001)은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 화장관리, 식이관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전문 관리, 의복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2]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간 따른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 계수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B*				
(상수)	1.167	.134		8.735	.000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096	.040	.139	2.385	.017		
미세먼지 위험 인식	.053	.052	.063	1.021	.308		
뷰티관리 행동 - 헤어관리	-.006	.032	-.012	-.201	.840		
뷰티관리 행동 - 화장관리	.013	.038	.025	.350	.726		
뷰티관리 행동 - 피부관리	-.118	.030	-.257	-3.888	.000	6.665***	.096
뷰티관리 행동 - 식이관리	.055	.031	.118	1.738	.083		
뷰티관리 행동 - 전문관리	-.128	.029	-.268	-4.453	.000		
뷰티관리 행동 - 의복관리	.117	.033	.254	3.592	.000		
독립변수 : 자녀 유무							
R=.310, R^2 =.096, 수정된 R^2 =.082							

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 인식이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 510명(남: 234, 여: 276)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뷰티관리행동 특성,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 뷰티관리 행동 등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문제 검증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

연구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미세먼지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설문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 직업,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의 문항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에서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종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에서 남자 3.96점, 여자 4.01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1$), 이외의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전체적인 문항의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남자' 3.82점, '여자' 3.87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듣거나 각종 정보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p<.05$), 미세먼지로 인

한 피해 사항 인식(p<.001),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p<.01),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p<.001),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지 여부(p<.00) 등의 문항에서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인식의 관심영역에서 '나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5), 이외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p<.001),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p<.001)에서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성 영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p<.05),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은 매우 두렵다'(p<.05),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p<.01)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로 비롯되는 위험도(p<.01) 문항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외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도 영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p<.05),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p<.01),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p<.01)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문항의 집단 간 평균점수에서 '남자' 3.25점, '여자' 3.42점으로 나타나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녀 유·무에 따른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

여부(p<.05),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경험 여부(p<.01) 등의 문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시 자녀가 없는 연구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 지며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해서 두 그룹 다 미세먼지 인식, 관심도, 심각성, 체감도에 대해 유의한 값을 가졌다.

성별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에서 '전문제품 구입 사용 여부'(p<.05),와 '취침 전 샴푸 여부'(p<.001)에서는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헤어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헤어 스타일링제 사용 여부'(p<.01)에서는 남자그룹이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에서 '전문제품 구입 사용 여부'와 '헤어 스타일링제 사용 여부'(p<.01)에서는 자녀가 없는 그룹이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침 전 샴푸 여부'에서는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샴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헤어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관리 에서도 '메이크업 제품 구입'(p<.01), '기능성 화장품 사용'(p<.05), '화장품 선호도'(p<.001)에서는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화장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화장품 사용 여부'(p<.05)에서는 남자그룹에서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관리 행동 중 화장관리에서 '기능성 화장품 사용'(p<.05)은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화장품 사용 여부'에서는 자녀가 없는 그룹에 비해 있는 그룹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그룹에 비해 있는 그룹에서 화장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에서 '세안 시 신경 쓰는 여부'(p<.01), '마사지 팩 사용 여부'(p<.001)에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서 '세안 시 신경'에서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전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그룹에 비해 있는 그룹에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관리 에서 '건강식품 섭취 여부'($p<.05$), '유해물질 섭취위해 물 섭취량 여부'($p<.05$)에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식이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유·무에서도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식이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전문관리 에서는 '눈 세정제 사용 여부'($p<.05$)에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서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 여부'에서 자녀가 없는 그룹에 비해 있는 그룹에서 시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전문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의복관리 에서도 '반팔보다 긴팔 착용 여부'($p<.01$),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 탁용 여부'($p<.001$), '외출 후 의복을 털고 들어오는지 여부'($p<.01$)에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더 의복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자그룹에 비해 여자그룹에서 화장관리, 피부 관리, 식이관리, 의복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서도 '반팔보다 긴팔 착용 여부'($p<.001$), '외출 후 의복을 털고 들어오는지 여부'($p<.05$)의 문항과 전체적인 문항의 평균점수에서도 자녀가 있는 그룹에 비해 없는 그룹에서 의복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문제2〉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인식, 뷰티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세먼지 위험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p<.01$), 위험 인식($p<.01$),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p<.05$), 전문 관리($p<.01$), 의복관리($p<.001$)에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뷰티관리 행동 중 화장관리, 피부 관리, 식이관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096, $p<.05$),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118, $p<.001$), 전문 관리(−.128, $p<.001$), 의복관리(.117, $p<.001$)은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헤어관리, 화장관리, 식이관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전문 관리, 의복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뷰티 관리행동 특성에서 뷰티관리 부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에서 피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다음으로 헤어관리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실시 시기는 주로 여가시간이 생겼을 때로 가장 많았고($p<.001$), 뷰티관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기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뷰티관리 평균 횟수는 한 달에 1～2회로 나타났고($p<.01$), 지출 비용은 대체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뷰티 관리행동 특성에서 뷰티관리 부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에서 피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뷰티관리 실시 시기는 주로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뷰티관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기만족과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뷰티관리 평균 횟수는 자녀가 '있다'는 1주일에 1~2회가 가장 많았고, '없다'는 한 달에 1~2회로 나타났고($p<.05$), 지출 비용은 대체적으로 두 그룹 모두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간 상관관계에서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서 아주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167), 위험 인식(.112), 뷰티행동 중 전문 관리(-.093), 의복관리(.114)에서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위험 인식, 뷰티행동 중 전문 관리, 의복관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뷰티관리 중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도 '피부 관리' 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헤어 관리,식이 관리, 의복관리, 화장관리 순 으로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남자에서는 피부 관리와 헤어관리를, 여자에서는 피부 관리와 식이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녀 모두 자기만족과 건강을 위해서 뷰티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뷰티관리 지출하는 평균 비용에서 남·녀 모두 5만원 미만과 5만원~10만원 미만을 1개월에 뷰티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인식이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미

세먼지 위험 인식,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뷰티관리 행동 중 피부 관리, 전문 관리, 의복관리에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미세먼지에 대한인식과 심각성 정도에 더 유의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연구 후 결과는 자녀가 없는 사람의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비율적인 부분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좀 더 높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둘째,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인지는 주관적 인지 및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통계조사의 한계점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척도를 바탕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선행으로는 미세먼지가 두피 손상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가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만 소수 존재 한다. 추후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의복, 메디컬 스킨케어 등과 같은 세부적인 뷰티관리행동으로 나누어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대도시 사람들로만 대상으로 했다. 전체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엔 타 지역도 연구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통계 결과를 얻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뷰티관리행동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를 뷰티 손상 요인으로 인지 하는지를 알아보고 달라진 뷰티행동을 알아본 점 등은 선행연구 없이 진행된 연구이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욱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토대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구상미, 김현지. (2019). 간호대학생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인식, 지식, 위험태도, 건강관리행위 간의 관계. 『한국 산학 기술 학회』, 78-84.

김선영. (2019). “미세먼지 차단 안티폴루션 화장품에 대한 시장분석 및 브랜딩 전략”.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영욱, 이현승, 이혜진, 장유진. (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 정보 학보, 72, 52-91.

김운수. (2014).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1-19.

김인옥. (2019).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뷰티관심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뷰티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춘일. (2001).『permanent wave design』. 서울: 고문사. p.162.

김현. (2003). “남녀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승호. (2014). “미세 먼지에 관련한 인식평가와 교과 분석을 통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중학생 대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선, 오현정, 김수현, 민아리. (2018). 대학생의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식, 관리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와 건강 관리행위의 관계. 기초간호자연과 학회지, 20(1), 20-29.

윤서성, 추장민. (2004). 동북아지여의 황사피해분석 및 피해 저감을 위한지역 협력 방안 ii. 서울: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정연정. (2017). “부모와 보육교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와 대응방안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2(4), 149-150.

조미진, 김성남. (2019). 생활체육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뷰티관리행동.『한국디자인문화회』.25(3).427-44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건강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불청객, 미세먼지』.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현상민, 강정원. (2017). 『미세먼지 과학』. 서울: 씨아이알, p.ix.

현상민. (2018). 『미세먼지 X파일 : 미세먼지 인벤토리』. 서울: 씨아이알, p.3.

홍하나. (2016). “미세먼지에 의한 모발 및 두피 손상인식과 관리 태도에 관한 만족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임. (2007). “소득에 따른 중년층의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승식, 권호장, 조수헌. (2005).2002년 봄 서울 지역에 발생한 심한 황사가 일병사망에 미치는 영향.『대한예방의학회』, 38호, 197-202.

2. 국외문헌

S. B. Kaiser, (1990).『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pp. 157-424.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Fine dust, what the hell?". Ministry of Environment. p6-22.

3. 기타자료

데일리팜.(2019). http://www.dailypharm.com. 2019.12.01. 검색.

미국환경보호청. (2019). http://www.epa.gov. 2019. 11. 10. 검색.

에어코리아. (2019). www.airkorea.or.kr. 2019. 11. 10. 검색.

특허청. (2019). https://www.kipo.go.kr. 2019. 12.01. 검색.

환경부. (2019).『미세먼지 팩트 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환경부. (2019).『미세먼지 주요 배출원과 배출량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CMN. (2019). https://www.cmn.co.kr. 2019. 12.01. 검색.

부 록

설문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설문지는 **미세먼지 인식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시행되는 설문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기재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한국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미세먼지 인식과 뷰티관리행동 관련 이슈의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1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김현정

연구자 : 김헌욱

(minucar@nate.com)

1.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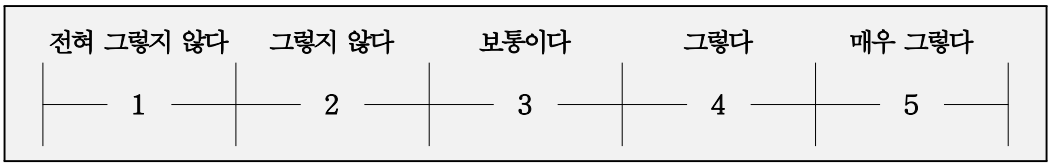
다음은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미세먼지 인식 및 관심도					
1)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집중되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2) 미세먼지 관련되어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듣거나 각 종 정보 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미세먼지라는 용어적, 과학적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미세먼지 중 위험한 요소인 중금속, 황 화합물 등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1	2	3	4	5
6) 미세먼지로 인한 나쁜 피해 사항들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 활동에 신경 쓰게 된다.	1	2	3	4	5
7) 각종 미세먼지 경보를 듣고 당일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였다.	1	2	3	4	5
8)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2. 미세먼지 위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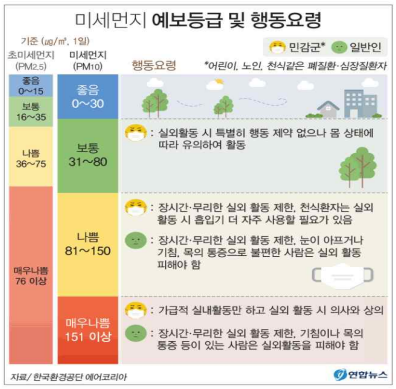
다음은 미세먼지 위험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관심 영역					
1) 나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이를 무시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5
심각성 영역					
4)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1	2	3	4	5
5)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6) 미세먼지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7) 미세먼지에서 비롯된 위험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5
체감도 영역					
8)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침과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9) 미세먼지가 많은 날, 두통이나 눈·목 등의 따가움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1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악화된다.	1	2	3	4	5
11)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3. 뷰티관리행동

다음은 뷰티관리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매우나쁨 일 때 귀하의 뷰티행동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헤어관리					
1)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 한다.	1	2	3	4	5
2)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취침 전 머리를 감는다.	1	2	3	4	5
3)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헤어 스타일링제를 바르지 않는다.	1	2	3	4	5
화장관리					
4)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메이크업 제품구입에 더 신경쓴다.	1	2	3	4	5
5)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안티폴루션 제품, 썬크림 등).	1	2	3	4	5
6)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기초 화장품만 사용한다.	1	2	3	4	5
7)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화장품을 선호한다.	1	2	3	4	5

피부 관리					
8)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1	2	3	4	5
9)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한다.	1	2	3	4	5
10)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세안, 콧속청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1	2	3	4	5
식이관리					
11)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	1	2	3	4	5
12)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1	2	3	4	5
13)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특정음식을 더 챙겨 먹는다.	1	2	3	4	5
전문관리					
14)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을 받는다.	1	2	3	4	5
15)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과나 전문병원을 이용한다.	1	2	3	4	5
16)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 세정제를 사용한다.	1	2	3	4	5
의복관리					
17)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능한 반팔보단 긴팔을 착용한다.	1	2	3	4	5
18)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다.	1	2	3	4	5
19)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귀가 전 의복을 털고 들어온다.	1	2	3	4	5

4. 응답자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와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회사원

④ 서비스직 ⑤ 자영업/프리랜서 ⑥ 전업주부

⑦ 기타

4) 귀하의 결혼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5) 귀하의 자녀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뷰티관리행동 특성

다음은 귀하의 뷰티관리행동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1) 귀하는 뷰티관리 중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① 헤어관리 ② 화장관리 ③ 피부관리
④ 식이관리 ⑤ 의복관리

2) 귀하는 뷰티관리를 주로 언제 하십니까?

①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② 주말에 ③ 정기적으로
④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⑥ 뷰티상품을 구매하기 전,후에
⑦ 기타

3) 귀하가 뷰티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 ② 취업 ③ 자기만족
④ 주변의식 ⑤ 이성교제 ⑥ 기타

4) 귀하의 뷰티관리 횟수는 평균 몇 회입니까?

① 1주일 1~2회 ② 1주일에 3회 이상 ③ 한 달에 1~2회
④ 한 달에 3회 이상 ⑤ 2~3달에 1회 이하 ⑥ 기타

5) 귀하는 뷰티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1달 평균 얼마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 20만원 미만
④ 20만원 ~ 30만원 미만 ⑤ 3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ABSTRACT

Effect of Perception of Fine dust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Kim, Hun-Wook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Our daily lives are inseparable from the environment. The latest environmental issue which gets attention from many people is fine dust. Fine dust not only causes cosmetic damage, but also has a deep connection with beauty life, which led to the launch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the beauty consumers' perception of fine dust, the perception of fine dust risk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beauty management behaviors by factors. These are three research issues that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about.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on perception of fine dust(including risk perception) and beauty management behavior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Second,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fine dust(including risk perception) and beauty management behavior?'. Last, 'How the risk perception of

fine dust has impacts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The study was analyzed through prior studies, literature surveys and empirical surveys through questionnaires. Statistical processing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WIN (ver. 18.0).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level of perception of fine dust is generally more interested in the group without children and women's groups than in men's groups. When it comes to its severity, only for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risk resulting from fine dust, the result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other questions. In terms of sensory level of fine dust, the women's group has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the risk of fine dust compared to the men's group. It also showed that groups without children feel same like women's group. As for the beauty care behaviors that follow the risk perception of fine dust, women's groups are more concerned about hair care and makeup care than men's. But, it shows men's groups use more basic cosmetics.

When it comes to skin care, the result shows that women's groups and the groups with children are more concerned about it. As for 'dietary management', women's groups were more concerned about it compared to men's groups, with no other statistical significance. It is shown that the groups with children take more dermatology laser treatment, showing those groups generally care about professional care. As for 'clothing management', The answers of questions like 'whether they wear long sleeves than short sleeves', 'whether they are wearing masks or caps' and 'whether they dust off their clothes after going out' result in women's groups are more concerned about clothing management than men's groups. In short, the survey showed the

women's group generally pays more attention to makeup, skin care, diet and clothing management than the men's group.

It was found to have high correlation between 'risk perception of fine dust' and 'skin care and clothing management' and the perception has an impact on skin care and clothing management among beauty care behaviors.

Overall, skin care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beauty management, followed by hair care, diet, clothing management, and makeup management,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Generally, skin care and hair care are the most important in men, and skin care and diet in women. The biggest reason for beauty care is for self-satisfaction and health for both men and women. In terms of average cost of beauty care, both men and women spend 'less than 50,000 won' or 'more than 50,000 won less than 100,000 won' per month on beauty care.

To sum up, the study shows the difference of risk perception of fine dust by gender and how it impacts on skin care and clothing management. Also, according to having children or not, those two groups show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fine dust and the perception has significant effects in skin care, professional care and clothing management among beauty care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awareness and risk perception of fine dust affect overall beauty management behavior for men and women from 20s to over 50s. The results can be used to systematize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marketing and product development, which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beauty market in Korea.

【Keyword】 Beauty management behavior, Fine dust, risk perception, risk